

2026년 09월 16일 금융 AI/A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

작성일시: 2026년 09월 16일 06:32

요약

AI 개발 '속도조절론'이 글로벌 증시와 정책 담론을 동시에 흔들고 있는 가운데, 미 재무부 베센트 장관이 "AI 기업은 생성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히며 AI 거버넌스·책임 프레임워크가 본격적인 규제 의제로 부상했다.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제' 도입 추진에 따른 금융업계의 반발과 연 2,800억 원 배상 독백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10월 신종 피싱 대응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응 체계 점검이 진행 중이다. 금융권은 5대 은행 공채에서 AI·보안 등 전문 직무 중심으로 채용 구조를 재편하는 등 인재 경쟁이 가속화되고, 삼성SDS의 엔트로픽 공인 파트너 자격 획득 등 기업 AX 전환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 측면에서는 미 10년물 국채금리 5% 돌파와 유가 상승이 AI 투자 수요와 맞물려 금융환경을 압박하고 있다.

주요 동향

1. 정책 및 규제 동향

AI 책임·안전 규제 프레임 강화

- 미 재무부 베센트(Scott Bessent) 장관이 15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AI 기업이 면책될 수 없으며, 생성된 결과물에 대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며 AI 개발사 책임 원칙이 금융규제 영역으로 확장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 엔트로픽 다리오 아모데이 CEO의 'AI 개발 속도 조절' 발언(12일) 이후 오픈AI가 엔트로픽·구글과 AI 안전 협력을 진행 중임을 공개하며, 빅테크 간 안전 협력 체제 구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미 하원에서는 린치 의원의 AI 조사 요구가 제기되는 등 의회 차원의 AI 감시 활동도 진행 중이다.

디지털자산 입법 진통

- 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절차표결이 49대 50으로 무산되며 상원 상정에 실패했다. 공화당은 불법 금융 차단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조항을 포함한 최종 초안을 공개했으나, 가상자산 유권자 평가표 반영 여부가 향후 표결 흐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영국은 상원이 정부를 압박해 디지털자산 국가전략 수립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전략 수립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 국내에서는 코인 손실 후 반등으로 '본전' 상황에서 2,145만 원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보도되며, 결손금 이월 공제 제도 설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화정책과 AI의 교차

- 한국은행은 팬데믹 이후 중립금리가 반등 추세이며 인구 구조와 AI가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AI 투자 수요가 실물 및 금융시장 전반의 금리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5.0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베센트 장관은 금리 상승이 "글로벌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AI 투자에 따른 재정·자금 수요의 영향을 부인하지 않았다.

2. 금융보안 이슈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제' 논란 본격화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책임 없이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연 2,800억 원의 배상을 은행권이 '독박'하는 구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통신망 유인→금융사 편취→범죄자 도주의 다단계 구조로, 책임 소재 분배 논리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 영국의 유사 제도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이 제시되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국제 사례 검토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 금융위가 구축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의 역할과 한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2에 따른 정보 수집·전파 체계가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신종 피싱 수법 진화와 대응

- 금융감독원은 상품권처럼 현금화가 쉬운 물건을 카드로 구매하게 만드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르자 소비자 주의 당부에 나섰다.
- 10월 신종 피싱 대응 제도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엑스(구 코빗)와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기반 금융사기 대응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금융사기 탐지 및 자금 추적 체계를 점검했다.
- 10대 증권사는 미성년자 계좌의 '빚투'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 업비트는 서울시와 '업클래스 금융골든벨'을 개최해 보이스피싱·딥페이크 등 신종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청년층에 제공한다.

AI 활용 보안 기술 부상

- 키옥시아 벤처 이모션X는 완전동형암호(FHE) 기술로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했다.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 연산할 수 있는 기술로, 기밀 유출 위험 때문에 클라우드·AI 도입에 소극적이던 방위·금융 등 고위험 산업군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AI 속도조절론 확산과 함께 글로벌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는 급락, 사이버보안주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며 보안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 금융권 AI 도입 현황

은행권 AI 전문인력 경쟁 심화

- 5대 은행 하반기 공채에서 AI·디지털·보안 등 전문 직무 중심으로 채용이 재편되고 있다. 4대 은행 점포 수는 2020년 말 3,303개에서 지난해 말 2,685개로 감소하며,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인력 구조 전환이 뚜렷하다.
- KB금융 차기 회장 인선을 앞두고 AI·고령화가 차기 중장기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거론되며, 이재근 후보는 "새 기준을 만드는 리딩금융"을 강조하는 등 그룹 차원의 AI 경영 체계 재정비가 진행 중이다.

AI 기반 금융서비스 고도화

- 카드사��킹앱(카뱅)에 AI비서가 모임 관리·투자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뱅앱은 결국 대화창만 남을 것"이라고 전망해,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반 금융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된다.
- IBK기업은행은 리스크 전문가 출신 장민영 은행장 체제 아래 투자상품 판매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완전판매 위험 자동 식별 시스템과 피싱문자 진단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 보호·보안 영역에 AI를 접목했다.
- 딥브레인AI의 'AI 스튜디오' 플랫폼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도입되어 실시간 대화형 AI 휴먼 기술이 금융 접점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 AX(전환) 생태계 확장

- 삼성SDS는 엔트로픽 공인 파트너 자격을 획득, 클라우드 기반 기업 맞춤형 AI 솔루션을 공공·금융·제조·물류에서 축적한 혁신 경험과 결합해 대외 고객 AX 사업으로 확대한다.
- 컴포짓 AI 전략이 사업 영역 확장의 축으로 부상하며, 케이뱅크 지표 인프라 구축 및 전남대·전북대·대구교육대 등에 AI GPU와 학습 플랫폼 제공 사례가 확보되고 있다.
- IT 대기업(AX 성숙도 68점)과 제조 중소기업(28점) 간 격차가 가파른 상황에서 'AI전환펀드'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제기되었다.
- 해외 진출 사례로는 한·우즈베키스탄 협력에서 한국의 AX 역량을 첨단제조·신재생에너지 협력에 접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이 한국경제인협회 일행에 참여했다.

4. 핀테크 및 디지털금융

AI 투자 자금조달 및 시장 영향

- 모건스탠리는 "AI 금융조달은 아직 초기에서 중반 단계"라고 분석해,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자금수요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 미·이란 간 금리·유가 악재 속에 나스닥이 0.78% 하락했으나 AI 관련주 일부는 반등해 섹터 내 자금 이동이 나타났다. 도이체방크 분석에 따르면 미국 주식 투자금이 채권 투자금을 초과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 국내 증시는 AI 낙관론과 고금리·고유가 악재가 팽팽히 맞서며 코스피가 제자리걸음을 지속, KB금융·삼성생명·신한지주 등 금융주 시총 방어가 이뤄졌다.

AI 인력·일자리 구조 변화

- AI 일자리는 25만 개 증가했으나 수도권 쏠림과 20대 소외 현상이 나타나 지역·세대 간 격차가 우려된다. 한은은 '청년고용 위축, AI 타인가' 보고서를 통해 AI 고노출 업종의 청년 일자리 감소와 기업 내부교육·장기 고용 관계 악화를 진단했다.
- SKT는 글로벌 AI 에이전트(해외판 에이닷) 사업을 접고 인프라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며, 플랫폼 경쟁에서 인프라 경쟁으로의 무게 이동이 확인된다.

기타

- KB국민은행이 6.5억 유로 규모 커버드본드를 발행했으며, 공급망 전체를 금융지원 단위로 확장한 AI 팩토리·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이 주목된다.
- 경기도는 AI로 전세 계약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 현장 확인을 결합한 '경기 안심' 서비스를 운영하며, AI가 부동산 거래 안전성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시사점 및 전망

1. AI 책임 규제에 금융규제 편입 가속

베센트 장관의 'AI 면책 불가' 발언은 AI 생성물 책임 원칙이 재무부·의회 차원의 공식 규제 의제로 넘어온 첫 신호로 볼 수 있다.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라는 무대에서의 발언인 만큼, 향후 금융 AI 활용에 대한 감독 가이드라인 및 책임 배분 프레임워크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은 AI 활용 확대에 앞서 모델 거버넌스와 결과물 책임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AI 속도조절론'의 시장 및 산업 파급효과 지속 주목

증권가는 속도조절론을 "빅테크의 IPO·경영 전략일 뿐 반도체 수요 이상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사이버보안주 상승과 반도체주 급락이라는 섹터 로테이션은 단기적 변동성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오픈AI·엔트로픽·구글의 AI 안전 협력 체제가 실질적인 표준화 논의로 이어질지가 4분기 투자 환경의 중요 변수다.

3. 보이스피싱 배상제도 설계의 신중한 접근 필요

연 2,800억 원 배상 독백 논란과 영국 사례의 미미한 효과는 '무과실 책임제'가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로 이어질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요구한다. 10월 신종 피싱 대응 제도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책임 배분 원칙과 ASAP 플랫폼 활용도 제고 방안이 정책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신종 수법(현금성 물품 카드 구매 등)의 진화 속도를 고려하면, 사후 배상보다 사전 탐지·차단 기술 투자가 보다 효율적인 대응일 수 있다.

4. 금융권 AI 인력 경쟁과 조직 전환의 병행

5대 은행의 AI·보안 전문인력 중심 채용 재편과 KB금융 차기 회장 인선에서의 AI 전략 부각은 금융지주 전반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한다. 점포 축소와 전문직무 확대라는 구조조정이 4분기 연쇄적인 금융권 CEO 인사 태풍과 맞물리며 조직 개편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5. 보안 기술이 규제 산업 AI 도입의 병목 해소책으로 부상

완전동형암호 등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은 데이터 규제와 기밀 유출 위협으로 AI 도입에 소극적이던 금융·방위 산업의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금융기업 입장에서는 AI 활용 확대와 동시에 암호화 연산 기반의 데이터 활용 체계를 검토할 시점이다.

6. 거시금융 환경의 제약 요인 지속

미 10년물 5% 돌파와 한은의 중립금리 반등 추정은 AI 투자 붐이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맞물리는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건스탠리의 'AI 금융조달 초기~중반' 진단을 감안하면, AI 관련 자금수요 압력은 당분간 금리 하방 요인을 제한하며 금융사 자금운용 및 신용정책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리포트는 2026년 9월 16일 기준 수집된 68건의 뉴스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용된 수치 및 발언은 각 언론 보도 내용에 기반합니다.

19. [금융 HOT 뉴스] 수은,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현지 진출 교두보 역할 - 비즈월드 - Google,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kFVX3lxTE1CNm1sWG5vMHRGcFZZVzRjMTRRYndqb3JTZT12eW9leDJVOXhpb1pJlJyS0l3TjRfODBIWW8tTgPkbGhZdmpLbGR>
20. 한·우즈베크, 교역 넘어 '공동생산'으로...핵심광물·AI 미래산업 손잡는다 - 지이코노미 - Google,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Z0FVX3lxTE0yVjRqd2JjU2l5TnZhbU9VN3U3Unp3c2FlaWtYX2RibzdXT2k2Zk1TTIR1MUdyS2VUcTBxSm5peXNqazRWnmlfT2o3a>
21. Michael Rangel, Novo 설립자 - 인터뷰 시리즈 - Unite.AI - Google,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EFVX3lxTE1FWWMwcfIwa2VFbnhvTHlabnhlUC1FOG9GTklsUzNvdW5HRkITVknjZGRRLVZzNDhiOkdXbzFXTDBfRzBXcHpaTG>
22. 상원 정부 놀렸다... 디지털자산 국가전략 수립 강제 - 글로벌이코노믹 - Google,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FBVV95cUxPQjZtUFVraG0yOEo4bnhXYkpya3NVOU1BYmE5aXKS3hUaGh2akFFEXzN5WXI6TjFZVmlwcUNWNzhCd0hrOVNfUW>
23. 한눈에 보는 게임 구성, 애니팡 맛과 친구랑하는법 - Histoire pour tous - Google,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ZAFBVV95cUxPcmxkZWdBTfU5cGxvclp2QjJWYjVhLW42MXhKYktkelc0QmNYOTdERzBsR0JLb3o4NklHMEVXWU5VOXV6MkRR>
24. 클래리티 법안 60표 절차표결...코인베이스 비판 보도 - tokenpost.kr - Google,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W0FVX3lxTFB1ZWw1bjQ4aVFQa25ua08zdVhvUkdNaW1haDdLMzd0OHVWOUd4cnFNRVNudzV4aWVrOHplMmtENy1LdWExd3Zl>

신한금융

25. 한·우즈베크, 교역 넘어 '공동생산'으로...핵심광물·AI 미래산업 손잡...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323717>

정책동향

26. [외신 헤드라인] 상원, '클래리티 법안' 상정 무산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biz.sbs.co.kr/article_hub/20000334864?division=NAVER
27. 구광모 LG 회장, 3분기 실적 낙관...추석 선물, 주주에 1천 500억원 현금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korea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62>
28. "암호 폰 채 분석 필요 없다"... 키옥시아 벤처 '이모션X', 완전동형암호...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g-enews.com/view.php?ud=2026091523281439410c8c1c064d_1
29. [AI시대, 권력 대이동-삼양식품] '불닭' 성장에 AI 엔진 장착...생산·품...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point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382>
30. **육동인 경인여대 총장 "AI 활용 가장 잘하는 여대 만들겠다" 파워인터뷰...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6676>
31. 공조는 같이, 배상은 왜 금융사만?...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제' 논란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mt.co.kr/finance/2026/09/16/2026091516533820771>
32. 10대 증권사 미성년자 '빚투' 차단 위해 미수거래 틀어 막는다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783>
33. LG화학·롯데케미칼 반도체 소재 승부수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sidae.com/article/2026091512220583105>
34. [금융현미경]KB발 세대교체...연말 금융권 CEO 인사 태풍 부나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1511464658431>
35. 5대 은행 하반기 공채 돌입...AI·전문인력 늘리고 채용문은 좁혔다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finance/6291246>
36. [AI시대 청년일자리]⑤ 신입 줄어든다...성장사다리 '흔들'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5001152>
37. 국채 5% 돌파...영끌족부터 반도체까지 '고금리 청구서' 날아든다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news1.kr/economy/trend/6291220>
38. 상조업계, 장례 넘어 요양·돌봄으로...초고령사회에 사업 재편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5001252>
39. [N2 모닝 경제 브리핑-9월 16일] 증시, '금리·유가' 계약재에 휘청...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60915500031>
40. [오늘의 주요일정]금융·증권(9월16일 수요일)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15_0003790066

41. 상품권처럼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물건을 카드로 구매하게 만드는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게티이미지 - 전자신문 - Google,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3AtBVV95cUxOel9RRkFBdUN2eHdtZEI3WUJURW5pZXpzaVl1TU13SnNfNmdnWTYzY1N1SkFYRG1VeW90eFNuX2xcXkd4Ujg1VG>

핀테크

42. 2026년 9월 16일. 오늘의 핀테크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핀테크투데이 - Google,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0FVX3lxTE5EbK9RcDRFQjNwU2VOSl9FeHRaV0xUTEpMUzdvWGRFdFdMeHFXcmI3Mi1lO2ZRdFgyNGRiSmRYaHB1MlI3VWN6L>

KB금융

43. [금융 게시판] KB국민은행, 6.5억유로 커버드본드 발행...신한·우리·부...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42>

44. 코스피 하락...삼성전기 삼성생명 약세, 삼성전자주는 강세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cb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965>

45. 코스피 제자리인데, 시총 요동...'배전반' 웃고 자동차 울상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566361>

46. 딥브레인AI, XR 전시관에 '실시간 대화형 AI 휴먼 NPC' 구현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609160148003?pt=nv>

47. 역할 커지는 KB증권...회장 교체 앞두고 이흥구 연임 주목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09150228>

48. [KB금융 차기 회장 인선] 이재근 "새 기준 만드는 리딩금융...회장 권한보다 시스템" : 네이버 블로그 - Naver Blog - Google,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jwFBVV95cUxNVTAwMDFudDlpWF9sN2Jfb0xaLW85STh5eTVFVEg3bktyNWdDOXltYnluYm1WcXVDbHdCVzdOYU1wWEtkcFdG>

49. [금융 게시판] KB국민은행, 6.5억유로 커버드본드 발행...신한·우리·부산·경남은행은 - 라이선스뉴스 - Google,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0FVX3lxTE4xWkFKYUo1d2F1MVk0UjFmd29kSFNONkF2MVJpZmFsB2h1MDIOVEFJM3FaMW1pb3JOSEpjVFhENTItOWROMGdw>

증권/카드/보험

50. [금융 HOT 뉴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S&P500', 하반기 개인 순매수 ...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316>

51. "AI비서가 모임 관리·투자 분석 척척, 카뱅앱 나중엔 대화창만 남을 겁..."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85926645580776&mediaCodeNo=257&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ews syndication&utm_con

52. 10년물 5.04% 기록...19년 만에 최고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1604550228358>

53. 10년물 19년래 최고에 베센트 "글로벌 요인"...재정적자 영향 인정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10486645580776&mediaCodeNo=257&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ews syndication&utm_con

54. [데이터&뉴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쑥'...OK 3.8% '툭', SBI·애뮤은...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779>

55. 1억 잃고 이듬해 1억 벌어 '본전'인데...코인 세금 2145만원, 왜?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news1.kr/finance/blockchain-fintech/6291303>

56. "AI비서가 모임 관리·투자 분석 척척, 카뱅앱 나중엔 대화창만 남을 겁니다" - 마켓인 - Google,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0FVX3lxTE5YNzN1N0IEYyIHVjdUR0tUcDY1YUZFVWtBcmR6bJ3WV9uTTBSRONLaUUyQnJyWkdGWTh5Q2VZT1d1jXzRBREJDbI>

57. "AI비서가 모임 관리·투자 분석 척척, 카뱅앱 나중엔 대화창만 남을 겁니다" - edaily.co.kr - Google,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gAFBVV95cUxOLUI5eUVtOWduTWNuYTZJSm1FTzk4UUJ2TmUtRGIsXy05Z2FxaDNpdG9EMUlaNFRvbVp1WkVhc0dOcUF0MG0w>

금융보안

58. 토지 매입비 0원, 아자부다이힐스 35년 집념이 바꾼 재개발 패러다임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9/15/2026091501768.html

59. AI 속도조절론에 증시 흔들...증권가 "빅테크 전략일 뿐, 반도체 이상 ...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etoday.co.kr/news/view/2625803>

60. [송호길의 금융]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리스크 전문가'의 눈으로....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81145>
61. 피크아웃 우려 넘기니 'AI 속도조절론'...코스피 영향은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15_0003790861
62. "보이스피싱 당하면 은행이 배상" 연 2800억 독박...영국은 효과 미미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mt.co.kr/finance/2026/09/16/2026091516560437013>
63. 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16일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mt.co.kr/society/2026/09/16/2026091522163828999>
64. 업비트, 서울시와 '업클래스 금융골든벨' 연다...청년 맞춤형 금융 지식...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thedaily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5633>
65. 박재삼 춘천경찰서장 노인대학 특강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72865>
66. 디지털엑스·신한은행, 신종 피싱 대응 공동 세미나 개최 - Naver,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31>
67. "보이스피싱 당하면 은행이 배상" 연 2800억 독박...영국은 효과 미미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 Google,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a0FVX3lxTFBIO3JlRzY1cGU2RHBSTE5jYW54Z0xZYW9VO2EtVDdvVTVUMTdyX3BVbkNYOmJuWlFZM2o3M0VtUjFxOTNBVEtLc>
68. 공조는 같이, 배상은 왜 금융사만?...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제' 논란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 Google, 2026년 09월 16일에 액세스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cEFVX3lxTE03QmhjOGZJYU1odnFNWXNqbNjUVndyYldCQkFzVzJHYVJXRzJyQkVicFMxY1RpNjNiWkpSOG5fTk02X1BmcnlYcFJl>

본 리포트는 AI가 자동 생성한 것으로,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